

[국제]

“이라크 점령·레바논 침공도 테러”

비동맹정상회의, ‘테러리즘’ 정의 최대 화두로

北·이란 등 주도...美·이스라엘 폭력행위 규탄

“누가 테러리스트이며 또 이는 어떤 기준으로 누가 결정하는가”

100여개 개발도상국이 참가하고 있는 비동맹운동 정상회의에서 테러리즘을 정의하는 문제가 새삼스럽게도 최대 화두로 떠올랐다.

쿠바 수도 아바나에서 열리고 있는 비동맹회의 개막 이틀째인 12일 고위관리 실무회담에선 미국의 이라크 점령, 그리고 이스라엘의 레바논 침공 등이 포함되도록 테러리즘에 대한 ‘전 세계적 정의’를 대폭 넓혀야 한다는 주장이 불사를 이끄는 듯하다.

AP통신은 이날 아바나발 기사에서 이라크와 시리아, 북한 등이 이런 신개념의 테러리즘 정의 작업을 주도하고 있다고 전했다.

회의 참석자들이 따르면 각국 대표단은 이른바 이중 기준에 대한 불만을 본격 제기하고 있다.

즉, 현 상황에선 미국과 이스라엘 같은 강대국들만 전 세계를 향해 테러리스트가 누구인지 결정할 수 있으며 거꾸로 자신들의 침략 행위에 대해선 어떤 처벌도 직면하지 않는다는 것.

이런 관점에서 오는 16일 폐막식에서 채택될 정상회의의 공동선언문의 초안은 “모든 형태의 테러리즘”을 비난한다고 명시했으며 무엇보다 무고한 민간인들을 타깃으로 한 폭력 행위를 강력 규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초안은 또 테러리즘이란 용어가 어떤 종교 혹은 국가, 민족과 관련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초안은 특히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즐겨 사용하는 어휘를 빌려(“비동맹운동 회원국들은 테러리즘에 맞서 싸운다는 구실로 다른 국가들을 타깃으로 삼기 위해 특정 국가가 ‘악의 축’이란 말을 사용하는 것을 전적으로 거부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쿠바는 이제 언젠가는 미국이 테러리즘을 권하고 있다고 NAM 회원국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게 될지도 모를 것이라며 이번 비동맹회의가 ‘악의 축 정상회담’이란 서방권 일부 언론 보도에 냉소적으로 반응했다.

그간 쿠바측은 73명을 숨지게 한 쿠바 민항기 폭파테러 용의자 루이스 포사다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강하게 비난해왔다. 하지만 하루전 미국 연방법원은 쿠바 정부의 신병인도 요구에도 불구하고 ‘반(反)쿠바 테러리스트’로 불리는, 쿠바 출신의 전 미국 정보요원 포사다의 석방을 결정했다.

또한 비동맹회의 선언문 초안은 이스라엘의 레바논 침공을 비난하면서 “이스라엘 침공에 맞선 영웅적 저항”을 보였다고 레바논 국민을 칭송했다.

일부 아랍 대표단들 사이에서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군사행동을 ‘국가 테러리즘’의 예로 명시하는 동시에 이스라엘의 행위를 전쟁범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오기도 했으나 선언문 초안 문구수정 과정에서 삭제된 것으로 전해졌다. /멕시코시티=연합뉴스



“천수이벤 총통 퇴진하라”

천수이벤 대만 총통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가 지난 9일 이후 연일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13일 한 시민이 타이베이 총통부 앞 시위대에 참여, 구호를 외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日 정부, 종군위안부 인정·책임져야”

美 하원 첫 결의안 상정

2차대전 당시 일본의 종군위안부 동원관련 결의안이 13일(현지시간) 처음으로 미국 의회에 상정돼 심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미 하원 국제관계위원회는 13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일본의 종군위안부 동원 관련 결의안(하원 결의안 759) 등을 상정, 심의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상정되는 위안부 결의안은 지난 4월 민주당 레인 에번스(일리노이주), 공화당 크리스토퍼 스미스(뉴저지주) 의원이 공동제출한 것이다.

앞서 지난 2001년과 2005년에도 위안부 관련 결의안이 미 의회에 제출된 바 있지만 일본측의 로비에 의해 해 번번이 상정조차 되지 못한 채 기각됐다.

이번 결의안은 일본 정부에 대해 ▲종군위안부 동원 사실과 책임을 인

정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할 것 ▲미 문제가 반인권적 문제임을 현재와 미래세대에게 교육할 것 ▲유엔 및 국제 암네스티 위안부 권고안을 이행할 것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결의안에는 하원 국제관계위 소속 의원 11명을 비롯해 공화당과 민주당 소속 미 하원 의원 50여명이 서명한 것으로 알려져 채택 여부가 주목된다.

그동안 미국 내 한인사회와 위안부 문제 관련 단체들은 미 의회에서의 종군위안부 결의안 상정 및 통과를 위해 범한인사회 차원에서 서명작업과 함께 지역 의원에겐 편지 보내기 운동 등 대대적인 캠페인을 벌여왔다.

김영근 워싱턴 한인회장은 “종군 위안부 결의안이 미 하원에서 채택될 경우 2차대전 때 일본의 잔학행위에 대해 전 세계에 고발하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워싱턴=연합뉴스

음주운전 원천봉쇄

日 닛산, 車 개발 착수

일본의 음주운전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닛산(日産)자동차가 음주운전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자동차의 개발에 착수했다고 일본 언론이 13일 보도했다.

닛산은 운전자의 입에서 일정 농도의 알코올이 탐지되면 엔진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 장치를 개발해 운전석에 탑재할 계획이다.

알코올의 측정기와 엔진 시동을 연동하는 기술은 그다지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수년내 실현 될 전망이다. /도쿄=연합뉴스

佛, 책가방 대신 메모리스틱 보급

학생들이 무거운 책가방을 지지 않아도 되도록 컴퓨터 기억장치를 나눠줘 수업내용을 보관하도록 하는 획기적인 방안이 프랑스에서 시도된다고 영국 더 타임스 인터넷판이 13일 보도했다.

프랑스 남동부 코트다쥐르는 학생들이 매일 무거운 책과 학습장비를 들고 다니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컴퓨터 기억장치를 나눠줄 계획이다. /연합뉴스

차베스 “9·11 테러, 美 자작극 가능성”



우고 차베스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12일 미국 뉴욕 세계 무역센터(WTC) 쌍둥이 빌딩 붕괴의 배후가 조지 부시 미국 행정부라는 ‘9·11 테러 음모론’은 나름의 타당성이 있다는 주장을 폈다.

차베스 대통령은 9·11 테러 5주년 하루 뒤인 이날 지지

자들에게 행한 연설에서 미국 정부가 9·11 테러사건에 관여했다고 구체적으로 비난하진 않았지만 미국 정부 연루설은 조사할 만하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다.

차베스 대통령은 “쌍둥이 빌딩에 다이너마이트가 설치됐을 수 있다는 가정은 터무니없는 것이 아니다”며 “(안에서 터뜨린다는) 내과가 있지 않았다면 빌딩이 결코 그와 같이 붕괴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현재 힘을 얻어가고 있는 (음모론) 가정대로라면 이런 끔찍한 테러 공격을 계획하고 실행한 자가 다름 아닌 미국 제국주의 세력이라는 것이며 이는 자신의 국민과 전 세계 모든 시민들에 반하는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왜 그랬을까? 아프가니스탄 그리고 이라크에서 즉각적으로 자유롭게 된 침공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라고 나름의 해석을 내놓기도 했다. /연합뉴스

광주일보 광고접수안내
전화: 062-222-1000
팩스: 222-3500

한양에 따른 재권자의 및 주권자출중고
유한회사 유한전력
유한회사 유한전력
유한회사 유한전력

분할합병공고
유한회사 유한전력
유한회사 유한전력
유한회사 유한전력

합병공고
유한회사 유한전력
유한회사 유한전력
유한회사 유한전력

분할합병공고
유한회사 유한전력
유한회사 유한전력
유한회사 유한전력

분할합병공고
유한회사 유한전력
유한회사 유한전력
유한회사 유한전력

건들임대
1층 225평
2층 225평
3층 225평
4층 135평
대지 720평
주차 80대

지역최초 양도소득세 전문강의
사례중심 강의로 누구나 쉽고 빠르게 배울 수 있습니다
세법전문가인 세무사가 직접강의하며, 신고서 작성을 연습합니다

노동부지정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현대직업전문학교
[최고 교수진, 알찬 교육, 최상의 시설]

공무원 무료 문제풀이
9월 24일 서무직, 10월 1일 서술시대비
단 100%출석시 문제풀이는 무료입니다.

연료비가 획기적으로 절감되는 난방
'칼레오' 원적외선 필름난방이 책임집니다.
난방비용이 획기적으로 절감됩니다.

현대직업전문학교
위 치 : 전남여고건너편 (김재규경찰학원 내)
224-4560, 236-2467

2007 국가직/지방직대비 공무원
한빛공무원학원
복구청 건너편 전남대 후문앞 234-0234